

‘반도체 쇼크’ 가상자산 급락… 비트코인 일주일새 16.8% ↓

비트코인 1BTC당 6만1666달러
이더리움·바이낸스 주간 21% 하락
전문가 “당분간 가상자산 약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따농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기업 투자자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가상자산 선호가 꺾였고,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으로 촉발된 ‘반도체 쇼크’에 위험 자산의 선호도 꺾인 영향이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가상자산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께 1BTC당 6만1666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과 비교해 약 1.64% 상승한 가격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 이상 내려앉은 지난 일주일의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 데 그쳤다. 7일 전과 비교한 가격 하락폭은 16.8%, 지난 한 달의 하락폭은 22.5%에 달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가격도 약세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

움(ETH)의 주간 가격 하락폭은 21.5%에 달했으며, 3위 바이낸스(BNB)도 지난 한 주간 21.3% 하락했다. 4위 리플(XRP)과 5위 솔라나(SOL)는 각각 16.8%, 23.3% 내렸다. 특히 이더리움은 작년 8월 기록한 최고가와 비교해 67.8% 하락해, 주요 가상자산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금이 증권가로 이동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해온

일부 기업도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현물 ETF가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분기 말 30만 BTC를 넘겼던 기관투자자의 ETF 보유고는 최근 25만 BTC 수준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업

스트래티지는 지난 1일 비트코인 32BTC를 매각했다. 매각 이유는 배당금 지급 재원 마련을 제시했다. 매각 규모는 전체 보유고의 0.004% 수준에 불과했지만, 스트래티지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주요 가상자산 기업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약 5% 하락했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촉발된 ‘반도체 쇼크’도 가상자산 가격의 기대를 낮췄다.

브로드컴은 지난 3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측치를 웃돌았지만, 3분기 AI(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전망치로 시장 기대(170억 달러)에 못 미치는 160억 달러를 제시했다. 가상자산 가격은 AI·IT 등 주요 기술주의 등락을 반영하는 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을 지나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상자산 가격도 함께 하락했다.

떨어진 금리인하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렸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투자 자산은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고용보고서에서 지난 5월 한 달간 비농업고용이 17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이 시장 전망치인 8만명을 2배 이상 웃돌면서, 지난해 상호관계 영향으로 얼어 붙었던 미국 고용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동 사태 영향에 미국 내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자산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AI-반도체주의 가파른 하락에도 주식 선호 흐름이 여전히 해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 인프라 회사 루트스톡랩스의 리처드 그린 기관 이사는 “기관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가상자산 매도를 촉진하고 있다”라면서 “스페이스X를 포함한 여러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1550원 환율… 신현송, 외환·금리 ‘시험대’

외국인 주식 매도·NDF 수급 쏠림
‘원화 약세’ 글로벌 달러 흐름과 괴리
한은총재 ‘환율쏠림 대응’ 검증 관심

원·달러 환율이 야간거래에서 1560원선까지 넘어가면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대응과 기준금리 경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달러 강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원화 약세에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수급 쏠림까지 겹치면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환율 쏠림 대응 메시지가 현실 검증을 받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주간거래 중장중 1549.1원까지 올라 1550원선에 근접했다. 주간거래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539.1원으로 마감했다.

상승세는 야간거래에서 더 가팔라졌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2시 기준 1559.0원에 마감했다. 5일 주간거래 증가보다 19.9원 더 오른 수준이다. 장중에는 한때 1561.5원까지 치솟아 심리적 저항선인 1550원과 1560원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외국인 매도·NDF 쏠림 겹쳐

이번 환율 급등에서 주목할 대목은 원화 약세가 주간거래부터 글로벌 달러 흐름과 괴리를 보였다는 점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5일 주간거래 당시 99.352로 전날보다 0.089 하락했다.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 원화가 유독 약한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후 야간거래에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인덱스가 100선을 넘어가며 환율 상승 압력이 추가로 커졌다. 주간거래에서는 원화 자체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야간거래에서는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1560원선 위로 밀려 올라간 구조다.

원화 약세의 직접적인 압력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서 나왔다.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521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순매도는 지난달 7일 이후 20거래일째 이어졌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는 역송금 수요가 커질수록 원화 약세 압력도 높아진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차액만 달러로 결제하는 역외 선물환 거래다. 국내 현물환시장보다 거래 주체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최근 지적한 “피라미드형을 흐르는 현상”도 이와 맞닿아 있다.

◆ 한은 ‘금리 대응’ 복잡해져

고환율은 물가 경로도 혼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3%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석유류뿐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며 한은이 경계하는 2차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다.

기준금리 경로와의 연결성도 커졌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과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환경이다.

시장에서는 당국 대응 여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1560원선을 넘어선 환율은 신현송 체제 첫 외환시장 시험대가 됐다. 달러인덱스와 괴리된 원화 약세, 외국인 주식 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 NDF-연장거래 수급 쏠림이 맞물리면서 환율은 물가와 금리, 금융안정을 동시에 흐르는 변수로 떠올랐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 시민이 서울 시내에 있는 저축은행 지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시

저축은행, 中企대출 확대… ‘포용금융’ 강화

1분기 中企대출 43.2조, 1.2조 ↑
전체 여신 증가분의 80% 차지

저축은행 업권이 전 분기 대비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나섰다. 정부 및 금융 당국의 포용금융 확대 주면에 따라 서다. 특히, 1분기 중소기업 대출이 1조원 이상 늘어나며 전체 여신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중기 대출 총액은 4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42조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여신 증가분(1조5000억원)의 80%가 중기 대출이다.

앞서 저축은행 중기 대출 잔액은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지난 2023년 1분기 약 65조원을 기록하던 중기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약 42조원까지 떨어졌다. 3년 새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이 높은 중기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해 왔던 탓이다. 실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연체율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2022년 6월 1.93% 수준이었던 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6월 5.76%까지 증가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저축은행의 중기대출이 다시 증가한 배경에는 금융 당국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중

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지역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진정한 경쟁력은 지역의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쌓아온 관계형 금융과 지역 밀착형 영업에 있다”며 “차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독보적인 안목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기 대출액 규모를 가장 크게 확대한 곳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다. 전 분기 대비 2148억원 확대됐다. 오케이저축은행(+1769억원), 애뮤저축은행(+1536억원), 대신저축은행(+1102억원)도 1000억원 이상 중기 대출을 확대하며 뒤를 이었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서는 대체로 축소 흐름이 나타났다. 신한, 우리 금융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의 중기 대출액은 급감했다.

대표적으로 KB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4035억원이던 중기 대출 취급액을 올해 1분기 2696억원으로 줄였다. 감소 규모는 1339억원이다. 하나저축은행도 9043억원에서 8269억원으로 마이너스(-)774억원을 나타냈다. BNK저축은행, IBK저축은행도 각각 -335억원, -3억원씩 대출 규모를 줄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기 대출 확대 기조와 더불어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재진 기자 wotjs4187@

둘째주, 전국 9개 단지서 200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일반물량 1193가구 분양

6월 둘째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0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물량 1193가구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C-27블록(공공분양), 강

원 강릉시 흥제동 ‘강릉성보필리오더센트럴힐즈’,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필리피아’ 등에서 청약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C-27블록에 공공분양아파트 화성동탄2C-27블록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20층, 7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아파트 473가구와 오피스텔 90실로 조

성된다. 이 중 공공분양주택 473가구를 이번에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 5억2941만~6억1737만원 수준이다. 전매 제한기간은 3년,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2BL’,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